

#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 후원 후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원준\*  
이희진\*\*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에 기초한 실증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525명)이다. 연구의 목적은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후원활동 후 감사증가여부가 미치는 매개효과, 그리고 기독교 유무에 의한 조절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하면, 첫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5개의 직접경로들(‘정서적 효용성→정신적 웰빙’,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 ‘정서적 효용→감사증가’, ‘가시적 효용성→감사증가’, ‘감사증가→정신적 웰빙’) 중에서,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무교집단에서는,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과 ‘감사증가→정신적 웰빙’, 이 두 경로에서만 유의한 직접효과가 입증되었다. 둘째, 기독교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감사증가)→정신적 웰빙’ 경로와 ‘가시적 효용→(감사증가)→정신적 웰빙’, 이 두 경로에서 ‘감사증가’의 부분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무교집단에서는 ‘가시적 효용→(감사증가)→정신적 웰빙’ 경로에서만 ‘감사증가’의 완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셋째, 개인 기부자들의 종교배경(기독교, 무교)에 따라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기부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와 ‘감사증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기독교 종교유무’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간의 정신적 웰빙에 기부활동을 통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의 직접효과, 기부활동 후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의 매개효과, 그리고 종교유무의 조절효과에서 밝혀진 차이점과 함께, 기독교인 집단은 무교집단보다 기부를 통한 정서적 효용감,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 그리고 정신적 웰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지닌 긍정적인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함의를 모색하며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정신적 웰빙, 기부, 감사증가, 가시적 효용, 정서적 효용, 기독교인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주저자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2016년 10월 31일 접수, 11월 28일 최종수정, 12월 8일 게재확정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에 대한 연구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헌신 및 후원지속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고,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웰빙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후원사업의 목적을 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만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은 개인 기부자들을 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며, 개인기부자들의 웰빙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이원준,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을 단지 자신의 물질(현금, 현물)을 지원하는 제공자(giver)로만 간주하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개인후원자들이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정신적 웰빙 또한 증진시켜 갈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로 간주될 수 있도록(이원준, 2014), 개인기부자들을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제공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혜자’로 확장된 정체성을 지닐 때, 후원활동에 보다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후원에 대한 헌신 및 지속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성장 및 정신적 웰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조직의 체계적인 노력은 성공적인 후원모금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부활동을 통해 얻는 개인기부자들의 가시적, 정서적 편익(benefit) 등을 탐색한 기부효용에 관한 선행연구(Sargeant et al., 2005; 정호영, 2006; 이원준, 2013)는 주로 기부효용이 기부헌신 또는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기부활동이 개인 기부자들의 자기성장 혹은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이원준, 2014)에서 기부효용감이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는데, 자기수용감은 자기 존중감 향상을 위한 선행요인이다(Rogers and Dymond, 1954). 자기수용은 자기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단계로서, 자기수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이 전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게 된다(Rogers, 1942; McCandless, 1963; 안신

호·박미영, 2005: 115). 또한 리프와 키스(Ryff and Keyes, 1995)는 자기수용감과 심리적인 건강 간의 강한 상관성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볼 때,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 등은 개인기부자들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개인기부자들은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후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클라이언트)의 형편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간과했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으며,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Watkins et al., 2003: 433)는 감사함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부활동을 참여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체험은 개인 기부자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감사하는 것’(gratitude)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특성이라는 주장은, 고대 종교경전에서부터 현대 사회과학연구에 까지 계속되고 있다(Emmons and Mishra, 2011: 248). 감사함의 중요성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들에서도 강조되어 왔다(Emmons and Crumpler, 2000). 선행연구(Watkins et al., 2003: 449)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종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사성향이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종교인들의 경우, 주변인들이 기여한 유익함 뿐 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Divine)의 도움을 크게 인정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기부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현상(아름다운재단, 2012)은 기부행위는 사회구성원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이타적인 기부동기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물론, 자선, 선행, 자비 등 타종교에서도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중에, 종교를 가진 이들이 보다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기부활동은 종교적 소신 혹은 종교적 삶의 실천이 드러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강철희·주명관, 2008:7). 따라서,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하는 기부효용, 삶에 대한 감사함과 같은 긍정적인 체험이,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개인 기부자들의

‘기독교유무’(종교배경)가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함께 분석하여, 기독교인들의 행동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한 가시적 효용 및 정서적 효용,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증가여부 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효과를 밝혀보고, 이러한 직·간접효과가 개인기부자들의 ‘종교유무’(기독교, 무교)에 의해 어떻게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도 함께 입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토대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후원자들의 정신적 웰빙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기부효용

‘기부효용이론’(utility theory)은 후원 및 기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해 온 사전트(Sargeant)가 처음 소개하였는데, 이 이론은 교환이론(Homans, 1961)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Sargeant and Jay, 2004; Sargeant et al., 2006). 기부행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체험을 기부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교환가치는 물질적, 경제적 교환가치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포괄한다(Blau, 1968). 블라우(Blau, 1968)는 사회적 교환에서 사회적 인정 또는 사회적 존경이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편익(benefit)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마케팅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교환가치에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이원준, 2013). 아네트 외(Arnett et al., 2003)는 특히 비영리 조직에서의 정서적인 만족, 영적 가치, 인도주의적 이념의 공유 등이 보상 또는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원준, 2013:17).

선행연구(Eisenberger, et al., 1990; Rousseau and Parks, 1993; Farmer and Fedor, 1999)는 비영리 조직에서 후원활동을 하는 개인 기부자들도 편익(benefit)을 추구하고

자하는 ‘상호호혜성’의 성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기부효용은 정서적 효용(정서적 기쁨, 만족 등), 가시적 혹은 실제적 효용(세금혜택, 주변인 인정, 유용한 정보취득, 사회네트워크 확대 등)등 그 특성이 다양하다. 기부자의 개인 특성 및 기부동기 등에 따라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부효용의 성격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기부자가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기부효용(예: 정서적 효용, 가시적 효용)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자아인식 및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기부효용감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Sargeant and Jay, 2004, 2005; Sargeant et al., 2006; 정호영, 2006, 2013, 이원준, 2013)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기부효용이 기부헌신 및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기부행위가 이타적, 친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기부활동을 통한 기부효용이 개인기부자의 자기 성장 및 웰빙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해볼 수 있도록, 연구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키스(2002, 2003)는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장애에 이환되지 않은 상태”(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2:369)라는 지시하는 일원론적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키스(2002, 2003)는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부재상태가 아니라, 행복을 지닌 상태라고 개념화하였다. 키스(1998)는 정신적 웰빙 척도를 개발하여 정신적 웰빙개념을 심리적 웰빙, 정서적 웰빙 그리고 사회적 웰빙,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키스(1998)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에 기초한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을 정신적 웰빙의 중요한 영역들로 포함시키며, “진정한 행복은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번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인기부자들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에 사업운용에 필요한 재원 등을 후원하는 행위는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키스(1998)가 언급한 “진정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원행위가 정신적 웰빙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3. 감사(gratitude)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인지”라고 에몬스(Emmons)와 미스라(Mishra)는 정의하였다(Emmons and Mishra, 2011: 248). 또한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용이 드는(costly), 가치 있는 소중한, 이타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체험하게 정서”(Wood, et al., 2008)이다.

왓킨스(Watkins) 외(2003)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풍요로움(abundance)이다. 즉, 마음이 풍요롭고 아주 작고 단순한 것에도 감사하는 특성이다. 둘째, 자신의 웰빙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기여에 대한 인정 및 평가이다(Watkins et al., 2003: 449). 셋째,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소재(internal locus) 및 외적 소재(external locus)를 강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혜택(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외부의 도움이 작용했던 그 맥락(상황)에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잘 되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여한 측면 또한 잘 인지하면서(Watkins et al., 2003: 437), 자신의 삶을 내·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감(competence)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매컬러프(McCullough) 외(2002)는 ‘감사’는 ‘친사회적 상호성’(prosocial reciprocity)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술한 ‘감사’의 순기능은 개인의 삶의 웰빙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감사가 아동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신체적, 대인 관계 등에 유용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Watkins et al., 2003; Emmons and McCullough, 2004: 249; McCullough et al., 2004; Bartlett and Desteno, 2006; Wood, Joseph and Maltby, 2008; Emmons and Mishra, 2011: 248; 노혜숙·

신현숙, 2008; 김유리·이희경, 2012; 이승연·한미리, 2016)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 개인의 웰빙에 개인의 감사성향이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왓킨스 외(2003)가 감사하는 사람이 지닌 주요 특성으로 소개했던 내용들, 즉 ‘풍성함’(abundance), ‘작은 것에 감사’,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 및 평가’, ‘자신의 웰빙에 기여한 타인의 도움에 대한 인식’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개인기부자들은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가족, 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긍정적인 평가, 즉 가시적 효용(benefit)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후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원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과 현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고통 받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간과했던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후원활동에서 체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은 개인기부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한층 더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삶에 대한 감사함은 후원활동을 통해 얻은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개인의 정신적 웰빙 향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매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4. ‘기독교 유무’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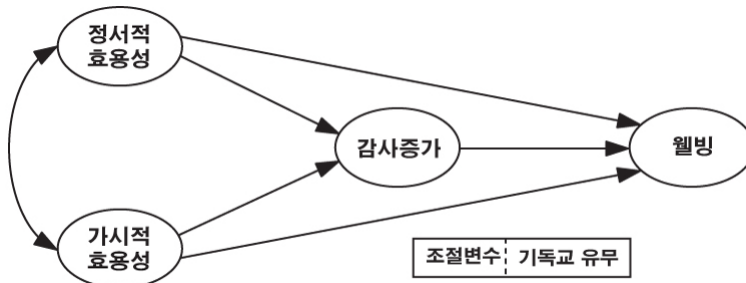
다수의 선행연구(Shelly and Polonsky, 2002; 강철희, 1998; 김태현, 2000; 주명관, 2008; 아름다운재단, 2012)는 기부동기와 ‘종교’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개인기부자들 중에서 무교인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아름다운재단, 2012)은 종교적 신념 또는 종교적 실천이 중요한 기부동기라고 밝힌 선행연구(Amos, 1982; 박수범, 2006)의 주장과도 잘 부합된다. 이러한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행동 양상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집단, 조직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and Turner, 1985; Ashforth and Mael, 1989)에서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을 아래의 [그림1]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한 '정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에 정적 직접 효과를 미치는가?
2.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한 '가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에 정적 직접 효과를 미치는가?
3. 개인기부자들이 후원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증가' 정도는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한 '정서적 효용' 또는 '가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4.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후원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증가'의 매개효과를 '기독교 유무'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들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29개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고 있는 개인후원자들이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현금 또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한 대상자(525명)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비교적 설문조사협조를 구하기에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관련기관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본 연구자의 연구취지와 목적을 직접방문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고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에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29개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시설)마다 설문조사 진행담당자의 협조로 설문지 배부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설문자료(1292부)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176부)는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 기독교인 응답자들과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자료(data)를 토대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는 525명으로 기독교인이 209명, 무교인이 316명이다. 남성(260명)과 여성(265명)의 성별분포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약 2/3가 30세 이상 ~ 60세 미만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개인후원자들의 다수가 비교적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을 알 수 있다. 30세 미만은 17.5%(92명)이고, 60세 이상이 약 7.2%(38명)이다. 조사대상자들 중에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약 74%(388명)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정신적 웰빙을 평가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정신적 웰빙척도(K-MHC-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키스(2002, 2003)가 개발한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척도를 국내에서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2012)가 번안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최근 국내연구에서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14문항)는 ‘정서적 웰빙(3문항)’, ‘심리적 웰빙’(6문항), ‘사회적 웰빙’(5문항) 등 3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표1참조). 6점 척도(0점~5점)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척도의 각 문항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혀 없음’(0점), ‘한번 혹은 두 번’(1점), ‘대략 1주에 한번’(2점), ‘대략 1주에 2 ~ 4번’(3점), ‘거의 매일’(4점), ‘매일’(5점)등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계수)에 기초한 척도의 신뢰도를 본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정신적 웰빙 척도(.876) 뿐 만 아니라, 세 하위척도 즉, 정서적 웰빙(.948), 사회적 웰빙(.846), 심리적 웰빙(.913)의 신뢰도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매개변수: 감사함 증가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 후원자들이 인지하는 감사함 정도의 증가여부를 파악하는 척도이다. 척도(3문항) 내용은 후원 후 전반적인 삶에 대해 더욱 감사, 어려운 이웃을 통해 감사함을 더 인식하게 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869이다.

## (3) 독립변수: 정서적 효용성

사전트 외(2006)가 기부연구에서 사용했던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척도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척도내용은 기부행위를 한 후 삶에 대한 활기, 잘한 일, 죄책감 면책 등의 체험정도를 묻는 문항(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효용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  값은 .726이다.

## (4) 독립변수: 가시적 효용성

사전트 외(2006)가 소개한 가시적 효용(demonstrable utility)척도 내용을 참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내용은 기부행위를 하면서 실제적인 이득을 얻은 경험, 즉 세 금공제혜택, 정보 및 자료혜택, 주변 인맥 강화 및 확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가시적 효용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  값은 .632이다.

### (5)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각각 어떻게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기독교 유무’는 이항변수(0=기독교, 1=무교)이다.

### (6) 분석방법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의 인과관계(직·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독립변수)이 ‘정신적 웰빙’(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그리고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9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적합지수는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상대적합지수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rker-Lewis index)의 값을 제시하였다. ‘기독교 유무’(기독교=0, 무교=1)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분석은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2, 표4). 매개효과의 경우, 실제로 정상성을 가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Schumacker and Lomax, 2004; 홍세희, 2009)을 고려하여,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할 수 있는 쉬라우트와 볼저(Shrout and Bolger, 2002)가 제시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구조모형 분석의 경우, 각 변수들이 정상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추정치의 적합도가 정확하지 않아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의 왜도값 및 첨도값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변수명	측정지표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 오차	침도	표준 오차
정서적 효용	기부가 삶에 활기를 준다.	3.53	.782	-.229	.073	.147	.146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옳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2.96	.988	.094	.073	-.766	.146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2.59	.934	.409	.073	-.243	.146
5점	척도	3.03	.728	.220	.073	-.107	.146
가시적 효용	기부시 세금공제혜택	3.07	1.132	-.240	.073	-.737	.146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 받음	3.29	.882	-.413	.073	.174	.146
	인맥강화 및 확대	3.07	1.009	-.131	.073	-.472	.146
5점	척도	3.14	.769	-.213	.073	.095	.146
(후원후) 감사증가	이전보다 삶에 더 감사	3.74	.709	-.311	.073	.296	.146
	어려운 아픔을 통해 더욱 감사	3.77	.677	-.354	.073	.541	.146
	자신의 처지에 대해 더욱 감사	3.69	.723	-.390	.073	.522	.146
5점	척도	3.73	.626	-.203	.073	.483	.146
정신적 웰빙	정서적 웰빙	2.67	1.13	-.108	.073	-.548	.146
	사회적 웰빙	2.28	1.04	.188	.073	-.468	.146
	심리적 웰빙	2.67	1.02	-.111	.073	-.554	.146
6점	척도	2.54	.953	.013	.073	-.459	.146

다변량(multivariate) 37.411 34.090

〈표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포(N=525명)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4개 변수를 각각 구성하고 있는 12개 관측변수(indicators)의 왜도와 침도를 <표1>에서 제시하였다. 측정 변수들의 왜도값은 -.413 ~ .409 범위에 있었으며, 절대값이 모두 2미만이다. 침도값은 -.766 ~ .541 범위에 있었으며, 절대값 7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 분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Curran et al. 1996:16-29).

## 2.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비교

정신적 웰빙 척도(0~6)의 척도값은 6 단계로 구분된다. 연구에서 정신적 웰빙의 척

도의 평균값(2.54)은 중앙점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정신적 웰빙 척도의 평균값은 '1주일에 1번'(2점)보다는 높지만, '1주일에 2~4번'(3점)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 정신적 웰빙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척도는 모두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이다. 후원 후 '감사증가' 척도의 평균값(3.73)이 '가시적 효용'(3.14) 또는 '정서적 효용'(3.03) 척도의 평균값보다는 다소 높다. '감사 증가' 척도의 평균값은 '그저 그렇다'(3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그런 편이다(4점) 수준에는 다소 못 미쳤다. '가시적 효용' 및 '정서적 효용'은 '그저 그렇다'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표1).

분석내용	변수명			
	정서적 효용성	가시적 효용성	후원감사효과	웰빙
기독교 209명 평균(SD)	3.048(.768)	2.979(.814)	3.796(.599)	2.762(.9395)
무교 316명 평균(SD)	2.937(.678)	3.223(.691)	3.572(.663)	2.376(.931)
t값(P)	-1.699(.090)	3.556(.000)	-4.635(.000)	-3.938(.000)

〈표2〉 집단별 주요변수 기초 통계 및 t-test 비교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간의 주요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정서적 효용'의 경우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변인들, 즉 후원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가시적 효용', '후원감사효과' 그리고 '정신적 웰빙' 등에서는, 기독교 집단이 무교 집단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들이 지닌 긍정적인 특성을 시사해주어 주목하게 된다(표 2).

###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네 잠재변인(정서적 효용성, 가시적 효용성, 감사함 증가, 정신적 웰빙)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3). 분석결과 네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인(indicators)의 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적 효용성'(.455~.760), '가시적 효용성'(.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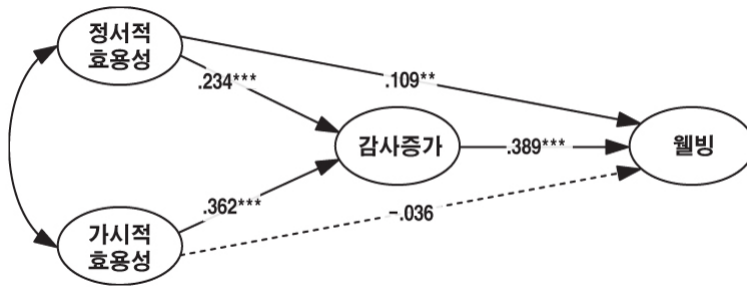
~.716), ‘감사함 증가’(.804~.870), ‘정신적 웰빙’(.783~.901) 등 세 변인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유의하였다. 측정변인(12개)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중상관자승값(.207~.801)도 모든 측정모형의 개별항목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결과( $\chi^2=365.759$ ,  $df=48$ ,  $p=.000$ ,  $TLI=.921$ ,  $CFI=.943$ ,  $RMSEA=.078$ )는 수용 가능한 범위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변수	측정치표	표준 추정치	비표준 추정치	S.E	C.R.	P	SMC
정서적 효용	삶에 활기	.455	1.000				.207
	잘한 일	.897	2.493	.183	13.605	***	.804
	죄책감 면책	.760	1.999	.141	14.158	***	.578
가시적 효용	세금공제혜택	.471	1.000				.221
	정보 및 자료 혜택	.716	1.185	.102	11.599	***	.513
	주변 인맥 강화 및 확대	.658	1.246	.107	11.634	***	.433
(후원 후) 감사함 증가	이전 보다 삶에 더 감사	.823	1.000				.677
	어려운 아픔을 통해 더욱 감사	.870	1.009	.032	31.096	***	.757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감사	.804	.996	.034	29.118	***	.646
정신적 웰빙	정서적 웰빙	.783	1.000				.613
	사회적 웰빙	.842	.994	.034	26.563	***	.709
	심리적 웰빙	.901	1.041	.034	30.630	***	.811

〈표3〉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N=525명)

#### 4. 모형분석

원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한 적합도( $\chi^2=365.759$ ,  $df=48$ ,  $p=.000$ ,  $RMSEA=.078$ ,  $TLI=.921$ ,  $CFI=.943$ )를 보여주어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그림2] 연구모형도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5개의 직접경로 중에서,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 경로 (-.036)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적 효용→정신적 웰빙’(.109\*\*), ‘정서적 효용→감사함 증가’(.234\*\*\*),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362\*\*\*), ‘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389\*\*\*)등 이 세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못하였지만, 후원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효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웰빙수준 또한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은 각각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효용→(감사증가)정신적 웰빙’(.095, 하한값 .067~상한값 .133)경로에서는 ‘감사증가’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효과가 입증되었고,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 경로에서는 (.141, 하한값 .101~상한값 .191)은 ‘감사증가’가 완전매개(full-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후원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적 효용이 삶에 대한 감사증가에 기여하고, 삶에 대한 감사는 정신적 웰빙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정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사증가’가 한층 더 강화시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증가’를 완전 매개로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가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서적 효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후원 후 삶에 대해 감사가 증가할 경우,

정신적 웰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가 있을 경우, 정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경로, 간접경로의 추정치와 유의도 검증			
직접경로	표준화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정서적 효용 → 감사함 증가	.234***	.399	.064
가시적 효용 → 감사함 증가	.362***	.396	.051
감사함 증가 → 정신적 웰빙	.389***	.588	.061
정서적 효용 → 정신적 웰빙	.109**	.271	.092
가시적 효용 → 정신적 웰빙	-.036	-.059	.072
간접경로	표준화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p
정서적 효용 →(감사 증가) →정신적 웰빙	.095	.235	.001
가시적 효용 →(감사 증가) →정신적 웰빙	.141	.233	.001
신뢰구간 검증	하한값(lower)		상한값(upper)
정서적 효용 →(감사 증가) →정신적 웰빙	.067		.133
가시적 효용 →(감사 증가) →정신적 웰빙	.101		.191
$\chi^2=365.759$ , $df=48$ , $p=.000$ , $TLI=.921$ , $CFI=.943$ , $RMSEA=.078$			

\*\*\* $p < .001$ , \*\* $p < .01$ , \*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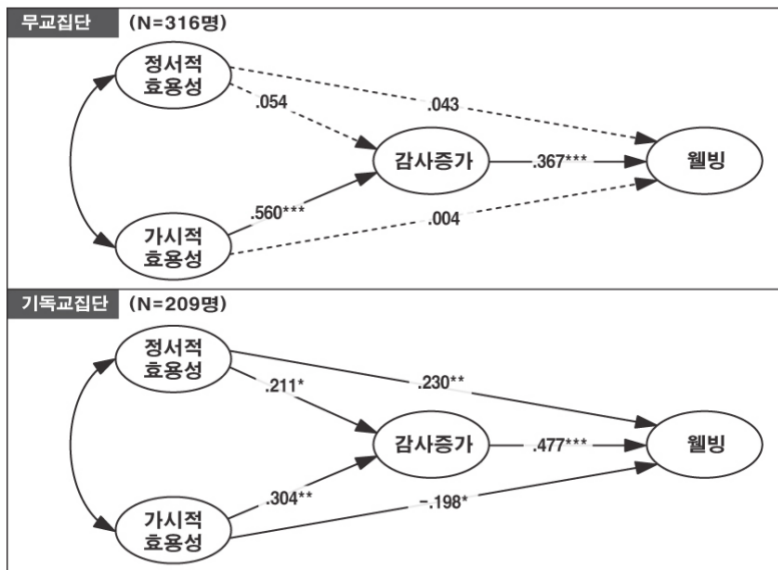
〈표4〉 모형의 요인적재량

5개의 직접경로 및 2개의 간접경로를 설정한 본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각 경로의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만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자의 종교유무(기독교, 무교)에 따라서, 각 경로의 직접효과 또는 간접효과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종교유무의 조절효과가 배제된 분석결과(그림2, 표4)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교유무의 조절효과 분석(그림3, 표5 참조)이 보완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5.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모형분석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집단과 무교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포함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계수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indicators)의 내용에 대해 기독교인들과 무교인들이 각기 유의미하게 동일하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다.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두 집단(기독교집단, 무교집단)간의 비교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림3] 연구모형도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 $\chi^2=286.358$ ,  $df=96$ )과 측정모형( $\chi^2=296.555$ ,  $df=104$ )을 비교하였을 때, 자유도 차이( $\Delta df$ )가 8일 때 카이자승차이 값( $\Delta \chi^2$ )이 10.197로, 임계치인 15.51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의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3]과 <표5>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두 집단의 각 모형에 포함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의 추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정신적 웰빙’(.230\*\*),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198\*), ‘정서적 효용→감사함 증가’(.211\*),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304\*), ‘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477\*\*\*) 등 5개의 경로에서 모두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정서적 효용→(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261, 하한값 .101~상한값 145) 경로와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210, 하한값 .061~상한값 .275) 경로의 간접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 집단(N=209명)				무교 집단(N=316명)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	.211*	.336	.135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	.054	.107	.154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	.304**	.271	.086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	.560***	.718	.140
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477***	.776	.134	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367***	.543	.127
정서적 효용→정신적 웰빙	.230**	.597	.209	정서적 효용→정신적 웰빙	.043	.127	.215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	-.198*	-.288	.134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	.004	.008	.209
<b>간접경로</b>				<b>간접경로</b>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261	.101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020	.058	
가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210	.145		가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206	.039	
<b>신뢰구간 검증</b>	하한값	상한값	P	<b>신뢰구간 검증</b>	하한값	상한값	P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022	.205	.012	정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055	.093	.486 (N.S)
가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061	.275	.003	가시적 효용→(감사 증가)→정신적 웰빙	.100	.366	.002

적합도  $\chi^2=296.555$   $df=104$   $p=.000$ ,  
CFI= .930, TLI= .911, RMSEA= .059

\*\*\*p<.001, \*\*p<.01, \*p<.05

〈표5〉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모형의 경로추정치 비교

기독교 집단의 연구모형의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정서적 효용’이 이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키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각각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가시적 효용’은 오히려 ‘정신적 웰빙’에 부적효과를 끼쳤다. 하지만 ‘가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키고, 이는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 또한 발견되었다. 즉,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가시적 효용’만으로는 ‘정신적 웰빙’을 오히려 감소시키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웰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정신적 웰빙’도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후원활동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효용 자체로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고, 때론 가시적 효용만으로는 정신적 웰빙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후원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한층 더 긍정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는, ‘정서적 효용’ 또는 ‘가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역할을 하였다. 즉,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체험한 ‘정서적 효용’ 또는 ‘가시적 효용’이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로 연결될 때, 이들의 정신적 웰빙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교 집단의 경우,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5개의 직접경로 중에서, ‘정서적 효용→정신적 웰빙’(0.043), ‘가시적 효용→정신적 웰빙’(0.004), ‘정서적 효용→감사함 증가’(0.054) 등 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0.560\*\*\*)경로와 ‘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0.367\*\*\*)경로, 이 두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경로를 보면, ‘정서적 효용→(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0.020, 하한값 -0.055~상한값 0.093)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시적 효용→(감사함 증가)→정신적 웰빙’(0.260, 하한값 0.100~상한값 0.366)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무교집단에서는 전술한 기독교 집단분석결과와는 달리, 후원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은 각각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효용감이, 후원하기 이전보다 삶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

한 무교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술한 기독교인 집단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비록 무교인 집단에서 가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를 완전매개로 할 때, 가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교 집단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무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정서적 효용’은 이들의 정신적 웰빙 증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무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가시적 효용’도 이들의 정신적 웰빙 증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무교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가시적 효용’은 이들이 기부활동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정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무교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에도,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가 개인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무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정신적 웰빙 또한 향상된다. 요약·정리해보면, 무교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정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증가’에 직접적인 유의한 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가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증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삶에 대한 감사증가’는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 직접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가시적 효용’은 비록 직접적으로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후원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져,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에 의한 완전매개효과(full mediation effect)가 입증되었다.

전술한 기독교 개인기부자 집단과 무교 개인기부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포함된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해보면, ‘기독교 유무’(조절변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3, 표5). 종교유무(기독교, 무교)의 조절효과분석이 배제된, 즉, 조사대상자가 기독교인지 또는 무교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분석하였을 때 나타난 분석결과(그림2, 표4)는 기독교인 집단과 무교인 집단 간

의 연구모형 분석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주요 연구문제인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원모형 분석,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도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위해서 기독교인 집단과 무교인 집단의 각 연구모형분석 결과들을 비교·검토한 결과, 종교유무(기독교, 무교)의 조절효과분석(moderating effect)을 병행하지 않은 분석결과에 기초한 주요변인 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및 해석에는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분석 결과를,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 또는 ‘가시적 효용’이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기부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기독교인인지 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후원헌신 또는 기부지속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개인기부자들을 자원(물질)을 지원하는 ‘제공자’(giver)로 주로 인식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제는 개인기부자들이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는 ‘수혜자’(beneficiary)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기부자들에 대한 관점이 확대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부효용이 개인기부자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양상을 개인기부자들의 종교 배경,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독교인과 무교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효용(예: 삶의 활기, 잘한 일, 죄책감 면책 등) 및 가시적, 실제적 효용(예: 세금공제혜택, 정보, 자료혜택, 주변 인맥강화 및 확대 등)이 실제로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후원 후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의 증가여부가 미칠 수 있는 매개(간접)효과는 각각 개인 기부자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무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논의점과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기독교 유무’(기독교, 무교)에 따라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게 되었다.

즉, 기독교인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정서적 효용이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가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에 미약하지만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은 후원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효용감을 많이 체험 할수록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되지만, 가시적 효용만을 체험하는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를 속물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부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반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은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히 기독교인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서적 기부효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기독교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기부활동을 하면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을 많이 체험할수록,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 가시적 효용만이 이들의 삶에 대한 감사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정서적인 보상보다는 실제로 기부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편익(benefit)을 얻었을 때만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 또한 높아지는 현상은, 개인기부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나, 종교를 전혀 가지지 않았거나 모두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종교배경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기독교인 개인기부자들의 경

우, ‘삶에 대한 감사함’은 후원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층 더 증폭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인 기부자들의 감사성향에 대한 탐색과 평가작업이 정신적 웰빙 증진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개인기부자가 종교가 없을 경우, 정서적 효용은 삶에 대한 감사를 증진시키지도 못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시적 효용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가시적 효용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 수 있고,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할수록,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무교인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가시적 효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삶에 대한 감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효용(정서적 효용, 가시적 효용)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부효용 체험을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들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감사일지 작성’을 통해서 개인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유리·이희경, 201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자신들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성향 향상을 위한 소집단 단위의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개인후원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의 기능 및 특성을 잘 반영시킨 감사성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교수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이제 자신의 조직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데, 이는 자신의 조직이 복지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원(물질)을 제공해주는 개인 기부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모금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는 체험을 할 경우, 기부활동에 더 헌신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기부를 지속케 할 가능성이 그 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많은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접근을 모색함에 있어서, 개인기부자들의 종교배경, 특히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대해서는 ‘차별성’ 둔 실천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부자들의 종교배경에 따른 개인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점을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개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0.
- 강철희·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1-38.
- 김유리·이희경 (2012). “감사성향이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학생생활연구』, 25, 19-35.
- 노혜숙·신현숙 (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박수범. (2006).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5, 137-162.
- 아름다운재단 (2012). “제 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 기부문화의 진화를 꿈꾸다 자료집.” 아름다운 재단.
- 안신호·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이승연·한미리 (2016). “노인의 감사성향 및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53-73.
- 이원준 (2013).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_\_\_\_\_ (2014).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66(1), 333-361.
- \_\_\_\_\_ (2016).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삶에 대한 감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1), 166-178.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S&M 리서치그룹.
- Amos O. M. (1982). “Empirical analysis of motives underlying contributions to charity.” *Atlantic economic journal* 10, 45-52.
- Arnett, D. B., S. D. German and S. D. Hunt (2003). “The identity salience model of relationship marketing success: The case of nonprofit marketing.” *Journal of*

- marketing* 67(2). 89-105.
- Ashforth, B. E. and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Bartlett, M. Y. and D. DeSteno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r helping when it costs you." *Psychological science* 17(4). 319-325.
- Blau, P. M. (1968). "Interaction: Social Ex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7. 452-458.
- Curran, P. J. and S. G. West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isenberger, R., P. Fasolo and V. Davis-LaMastro (1990).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diligence, commit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1). 51 - 59.
- Emmons, R. A. and C. A. Crumpler (2000).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56.
- Emmons, R. A. and M. E. McCullough (2004). *The psychology of gratitude*.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and A. Mishra (2011). "Why gratitude enhances well-being: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in *Designing positive psychology: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248-262.
- Farmer, S. M and D. B. Fedor (1999). "Volunteer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9(4). 349-368.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in elementary forms. A primer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Keyes, C. L. M. (2003). "Complete mental health: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 Keyes, C. L. M. and J. Haidt. (Ed.) (2003).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McCandless, B. R. (1963).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McCullough, M. E., R. A. Emmons and J. A. Tsang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27.
- McCullough, M. E., J. A. Tsang and R. A. Emmons (2004). "Gratitude in intermediate affective terrain: links of grateful moods 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daily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95-309.
-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Rogers, C. R. and R. F. Dymond (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o-ordinated research studies in the client-centered approa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usseau, D. M. and J. McLean Parks (1993). "The contrac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5. 1-43.
- Ryff, C. D. and C. L. 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719-727.
- Sargeant, A. and E. Jay (2004). *Building donor loyalty: The fundraiser's guide to increasing lifetime value*. John Wiley & Sons.
- Sargeant, A. and E. Jay (2004). "Reasons for lapse: the case of face to face donor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9(2). 171-182.
- Sargeant, A. and E. Jay (2005). *Redefining Commitment*. United Kingdom.
- Sargeant, A., J. B. Ford and D. C. West (2005).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 155-165.
- Schumacker, R. E. and R. G. Lomax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 Shelley, L. and M. J. Polonsky (2002). "Do charitable causes need to segment their current donor base on demographic factors?: an Australian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1). 19-29.
- Shrout, P. E.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Tajfel, H. and J. C. Turner (1985)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S and W. G. Austin (Eds.) (1985).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Chicago: Nelson-Hall.

Watkins, P. C., K. Woodward., T. Stone and R. L. Kolts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5). 431-451.

Wood, A. M., S. Joseph and J. Maltby (2008). “Gratitude uniquely predicts satisfaction with life: Incremental validity above the domains and facets of the five 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1). 49-54.

Wood, A. M., J. Maltby., N. Stewart., P. A. Linley and S. Joseph (2008). “The role of gratitude in the developmental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on: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854-871.

## Abstract

### Effect of Private Donors'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

Won-June Lee (Changshin University)

Hee-Jin Lee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525 private donors sponsor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study aims at verifying the effects of private donors' emotional and demonstrable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 donors show direct effects of all five paths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ositive effect of emotional and demonstrable utilities on mental health each, the positive effect of the two utilities on increasing gratitude each, and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on mental health. On the other hand, among atheistic donors, only demonstrable utilities and increasing gratitude have direct effects on their health. Second, among Christian donors, both emotional and demonstrable utilities has partial mediation effects on their mental health, resulting from increasing gratitude. Among atheistic donors, increasing gratitude shows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between their demonstrable utility and mental health. Third, according to the religious background of private donors, the direct effects of emotional and demonstrable utilities on mental health each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refore,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is proved. Lastly, since Christian donors show the higher level of emotional utilities,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ental health than atheistic donors in the analysis, it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 study, confirming Christian's positive characteristics.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Key Words: mental health, donation, increasing gratitude, demonstrable utility, emotional utility, Christian